

제2회 전북교육포럼, 22일 정읍서

전북교육의 미래·지역 발전 위한 방향 모색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제2회 전북교육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주)인포커스가 주관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전북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그려는 자리다. 특히 상위권 학생뿐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모두의 꿈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포럼 개최사는 김인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이, 축사는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진행한다. 좌장은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전 주콜롬비아 대사)가 맡는다.

이날 포럼은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교육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와 늘봄학교, 불법과외 근절 대책 등 교육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는 사랑의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도내 학원장들과 불법과외 근절 대책 모색

전북교육청,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와 간담회... 사랑의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지회장 손경호)와 늘봄학교, 불법과외 근절 대책 등 교육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 지역 학원장들이 함께했다.

특히 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는 이날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 원의 사랑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손경호 지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학원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돕는다

전북교육청, 2025년 취업로드맵 개발... 3대 핵심역량·120개 맞춤형 프로그램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2025년 직업계고 취업로드맵을 개발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직업계고 교감, 취업부장 등 취업 전문가 19명으로 TF팀을 꾸려 6차례 개발 및 검토 과정을 거쳐 3대 핵심역량과 120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취업로드맵에는 1학년 진로설계, 2학년 자기계발, 3학년 실천취업으로 이

뤄진 핵심역량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업서류 작성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120개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담겼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문가 취업컨설팅단과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취업로드맵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취업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로드맵에 따른 현장 적용 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직업계고 취업로드맵은 학교별 취업역량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에너지 신산업 이끌 인재 양성 '합심' | 우석대, 군산동고와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일 군산동고등학교(교장 김수영)와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현철 입학처장과 김수영 교장을 비롯해 양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협의와 협력 △일일방과-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및 실무교류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수소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군산동고등학교에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지역 에너지



우석대학교는 2일 군산동고등학교와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교장은 "우석대학교와 함께 학생들에게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

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함께 고려하는 이번 협력이 지역 사회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성과 '인정'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지난 달 28일 열린 제18기 수료식 및 제19기 발대식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전북대 GTEP사업단은 차별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단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조수영 지원팀장은 사업단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학생 부문에서도 이지수 학생이 장관상을, 김태형 학생이 한국무역협회 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과 함께 우수한 실무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김대환, 김태형, 남궁수, 박수연, 이원진, 안재혁, 조서형, 최원희, 황인형 학생 등 총 9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증서'를 획득했으며, 제18기 사업단 전체 인원(총 35명)이 100%의 수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지원하는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전북대는 매년 약 35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무역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 제6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전주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일 학내 한미성관 403호 강의실에서 제6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6기 서포터즈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에 관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홍보 및 사업의 중요성을 교내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평소 온오프라인 활동과 진로·취업탐색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들 중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4명을 임명, 참여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덕현 센터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서포터즈를 통해 학생 및 지역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진로 및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 선수와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승 축하 격려회가 열렸다.

성심여고 배드민턴부, 전국대회 재패

서거석 교육감, 선수단 격려... "훈련 여건 개선할 것"

서거석 교육감이 최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을 찾아 격려했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 선수와 학교 관계자를 초청해 우승 축하 격려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열린 대회에서 잇달아 낭보를 전해 오며 배드민턴 여교부 최강자임을 입증한 이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부는 지난해 106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여자고등부 단체 1위, 여자복식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달 9일 2025

독일주니어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천혜인·문인서 선수가 여자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또한 지난 달 14~24일 열린 2025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도 복식 1위, 단식 1위를 비롯해 총 10개 경기에서 입상하면서 단체 1위를 차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일주니어오픈 배드민턴대회와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러 분이 도내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부모 교육 강사단 2배 확대

전북교육청, 5개 분야 42명씩 10개 분야 100여명 규모로

자녀이해·미래교육·독서 및 인문 등 5개 분야 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 강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부모 교육 강사단을 지난해 5개 분야 42명에서 10개 분야 100여명 규모로 두 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생기는 5개 분야는 △감정조치, 심리상담 등 자녀이해 △미래교육·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 등 학력신장 △독서·인문 △교육활동 보호 등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들 신규 분야 42명의 강사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활동했던 우수 강사와 분정 각 사업 부서에 구축된 강사단을 활용해 학부모 교육 인력을 확

대·구축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8일까지 학부모교육 담당자 이메일(thankyou46@jedu.kr)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기본 자격요건을 보는 서면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9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강사단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강사단을 구성해 학부모 역량 강화와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안전의식 UP... 위기대응 UP...'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체험중심 안전교육 운영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태은)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위기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지난 1일 전주전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체험관 신청 대상은 초등 3학년~중학생으로 하반기 교육신청 모집 기간(7월중)에는 전주학생 교육문화관 누리집(https://ib.je.go.kr/jec)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화관은 △응급처치 △지진대피 △화재대피 △완강기 탈출 △화재진압 등 5개 과정 체험을 통해 재난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문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와 생활 속 각종 사고 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실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 영상을 활용한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 지진대피 교육·체험 등으로 학생들의 재난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은 관장은 "최근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교육현장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중심 안전교육 운영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